

장성군 ‘부자 농촌’ 만들기 속도낸다

올 농업정책 450억 집중 투입...복지·소득안정에 역점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생산·유통 단계별 맞춤 지원

장성군이 올해 농업살림에 45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는 등 ‘부자농촌’ 건설에 속도를 낸다.

장성군은 “올 한해 농업정책은 ‘부자농촌건설’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농업인 복지’와 ‘농가 소득안정’을 중점에 두고, 식량작물부터 원예, 가공 등 모든 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농업예산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8억여원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체감 예산도 늘었다.

◇체감형 농촌 복지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올해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전남 최초로 벼농가는 물론 사과, 딸기 농가까지 확대 운영해 혜택범위를 대폭 넓혔다.

또 바쁜 농사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마을 공동급식도 지원해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와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고나 재해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실질적 소득 증대’=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

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우선 쌀값 하락과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쌀 생산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농자재(못자리상토, 맞춤비료, 상자처리제) 지원과 친환경 해충 전적인 새끼우렁이 지원 등을 비롯한 4000ha 규모의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해 고품질 쌀 생산을 돕는다. 수확 후에는 낮은 쌀값을 보전해주는 출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각종 직불제와 농가경영안정비 지급으로 모든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예, 과수 농가를 위한 시설지원과 배리류, 버섯, 인삼과 같은 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을 이어가고, 농산물 공동선별, 마케팅, 포장제 등을 지원해 ‘장성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미래 농업, 6차 산업 인프라 강화=

장성군은 올해 변화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에 맞춰 식품가공용 원자재 공급 방안을 시도된다.

올해 건립되는 급속냉동식품 생산시설에 장성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천연조미료 융복합’산업도 본격 추진한다. 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전통식품특성화사업 등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40억원 안팎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사를 지어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 농업인에게 주고 싶다”면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과감하고 전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대숲맑은 방울토마토’의 새콤달콤한 유혹 담양 봉산면 연동리의 한 시설하우스에 출하기를 맞은 방울토마토들이 선홍빛 자태를 뽐내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는 ‘대숲맑은 방울토마토’는 속이 짙차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전국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담양군 겨울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 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경로당 등 안전점검

담양군이 동절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 2월까지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담양군은 겨울철 한파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756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건강과 안전 확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폭설·한파 발령 및 행동요령 등도 알리고 있다.

또 한파와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인이용시설의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22개소와 경로당 35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무리했다.

특히 55개 경로식당 및 거점급식소를 지정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912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 및 사량의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노인 급식수준을 높이고 영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독거노인 보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행정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파와 기상특보 발령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화순군 상징조형물 랜드마크로

교리IC 교통광장에 11m ‘꿈의 향연’ 설치

화순군 상징 조형물이 화순의 관문인 교리IC 교통광장에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 상징조형물 ‘꿈의 향연’이 건물 4층 높이 11m로 교통광장에 배치됐다.

화순군민의 꿈과 희망,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바람이 꽃처럼 피어나 열매(13 읍·면을 상징하는 꽃봉오리)로 영글어 가는 ‘순환’을 통해 역동적인 화순의 미래와 풍성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꽃의 형상은 군화(郡花)인 들국화 등 화순의 다양한 꽃무리와 축제를, 열매는 화순의 풍성한 농산물을 상징하며 전체적인

모형은 단결, 생명력, 부유함을 의미하는 포도송이 모형으로 군민의 염원인 ‘군민 화합’을 상징화 했다.

순봉재 작가의 작품으로 지난해 12월 조달청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기존의 고전적이고 정적인 조각조형물에서 벗어나 유압 원리를 이용한 키네틱아트(살아 움직이는 예술작품) 기법을 적용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결실과 희망, 풍요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꽃봉오리마다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조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구충곤(왼쪽 세번째) 화순군수 등이 최근 화순군 교통광장에서 열린 군 상징 조형물 ‘꿈의 향연’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올 교육예산 60억...전년비 20억 증액

화순군이 교육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교육의 경쟁력은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교육경비지원예산(이하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교육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창의·인성함양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연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계

획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다양한 입시 제도를 적극 반영한 진로·진학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화순군은 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 후 돌봄교실 운영 등 20개 사업에 32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군은 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증진 및 고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4400만원, 진로 진학 등 6개 사업에 2억 6200만원이 각각 지원한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담양군복지재단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50세대에 20만원씩

담양군복지재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책임지고 있다.

5일 담양군 복지재단에 따르면, 읍·면사무소를 통해 저소득 가구 50세대를 신청 받아 1세대 당 2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파로 인한 난방비 걱정 등 경제적

인 부담을 떠안았던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 및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위기가정을 돕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복지재단(061-383-8296~7)을 통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